

남용만(南龍萬)의 「십로시(十老詩)」 양상 일고찰

-유극장(劉克莊)의 십로시(十老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중훈*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남용만과 십로시 개괄
3. 십로시의 수용과 변주 양상
4. 나가는 말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국문초록]

송나라 유극장은 장수와 말과 기녀 등 열 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늠름과 관련된 십로시의 작품을 지은 바 있다. 이들 작품에는 늠름을 대면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 있다. 이 영향 하에 조선에서도 적지 않은 연작 노음시가 연이어 창작되었다. 유극장의 십로시는 총 10수로, 칠언율시이다. 조선 문인들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 수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시체(詩體)의 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남용만의 「십로시」를 유극장의 작품과 비교하여, 그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작 노음시를 지은 조선 문인 중, 남용만만이 유극장이 언급한 대상과 일치하고 운자 또한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기에,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피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작 노음시는 늠름에 대한 탄식이 주된 흐름이다. 유극장이나 남용만 역시 그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채 맞이한 노년의 서글픔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한숨을 자아내는 서술 방식을 애용했다. 남용만은 노년의 애달픔을 드러내기 위해, 유극장의 작품에 보이는 시어나 시상을 적극 활용했다.

반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변주의 노력도 병행했다. 노년의 탄식을 드러내기 위해, 노음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데, 남용만은 과거와 현재를 철저하게 대비시키면서 시상을 전개하여 노년의 탄식을 효과적으로 설파했다. 또한 노년의 탄식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거나 희망 섞인 바람을 담아내면서 차별화를 추구했다. 유극장의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구절은 자신의 작품에서도 적극 수용했고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구절은 자신만의 목소리 채우면서 작품의 방향성을 달리했다.

본고는 연작 노음시에 대한 접근의 출발점에 있다. 그렇기에 유극장의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후 연작 노음시 연구가 수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일한 대상과 운자를 활용한 남용만의 작품을 살펴본 것이다. 다른 작가의 작품과 입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은 본논문의 한계이나 연작 노음시 연구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유극장(劉克莊), 남용만(南龍萬), 노음시(老吟詩), 연작 노음시(連作老吟詩), 십로시(十老詩), 늙음에 대한 인식, 수용과 변주

1. 들어가는 말

고래로 늙음과 관련해 늙음을 탄식하거나 혹은 노익장(老益壯)·노련(老鍊)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단편적인 시작품은 거의 모든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늙음을 주제로 한 일련의 연작시도 등장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작품이 아닌, 본격적으로 늙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일련의 연작 노음시를 살펴볼 것이다.

늙음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노음시(老吟詩)’라고 할 수 있는데,¹⁾ 송(宋)나라 유극장(劉克莊, 1187~1296)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극장은 ‘老將·老馬·老妓·老儒·老僧·老醫·老吏·老奴·老妾·老兵’를 대상으로 총 10편의 연작 십로시(十老詩)를 지은 바 있다.²⁾ 이러한 영향 하에 조선의 문인 역시 수많은 연작 노음시를 지속적으로 창작했다. 논자가 파악한 조선 문인의 연작 노음시는 다음 표와 같다.

	작가	題名	詩體 / 首	對象
	宋 劉克莊 (1187~1269)		칠언율시 10수	老將·老馬·老妓·老 儒·老僧·老醫·老吏

- 1) ‘연작 노음시’의 범주에 대해서 박종훈은 “작품의 제목이 ‘○老詩’ 혹은 ‘老○’라는 형식을 띠어야 하고 반드시 연작의 형태여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연작 八老詩 일고찰」, 『온지논총』 65집, 온지학회, 2020, 79면 참조.
- 2) 청(淸)나라 송장백(宋長白)의 『전민시화(全閩詩話)』에서 “劉後村詠十老, 謂老僧·老道·老農·老醫·老巫·老吏·老妓·老儒·老將·老馬也.”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원(元)나라 방회(方回, 1227~1307)의 『영규율수(瀛奎律髓)』에서도 유극장의 십로시 열 수를 소개했는데, 실제 유극장의 『후촌집(後村集)』 권1에는 老將, 老馬, 老妓 3수만이 수록되어 있다. 『영규율수』에서는 유극장의 십로시에 대해 “다만 ‘老將’에서 ‘老吏’까지 7수를 선별했었는데, 지금 ‘老奴’ ‘老妾’ ‘老兵’ 3수를 더하여 10수를 채웠다. 내 생각에는 후촌 유극장의 시에는 세 가지 병폐인 ‘잔단 제주 [巧]’, ‘쓸데없음 [冗]’, ‘속됨 [俗]’이 있어서 격조가 낮아 좋은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3수는 그래도 불만 하다. [但選老將至老吏七首, 今加以老奴老妾老兵三首, 足爲十首. 予嘗謂後村詩, 其病有三, 曰巧曰冗曰俗, 而格卑不與焉. 此三詩, 可見矣.]”라고 한 바 있다. 이로 보건대, 실제 유극장의 작품으로는 老道·老農·老巫 3수가 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3수는 전해지지 않고 10수만 전한다. 조선 문인 역시 이 10수만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老奴·老妾·老兵
1	成 倪 (1439~1504)	六老辭	6수 (각 30구)	老儒·老將·老宦·老 商·老妓·老馬
2	蘇世讓 (1486~1562)	老將·老儒·老妓· 老僧·老奴·老馬	칠언절구 6수	老將·老儒·老妓·老 僧·老奴·老馬
3	李玄錫 (1647~1703)	老儒·老將·老仙· 老農·老僧	칠언율시 5수	老儒·老將·老仙·老 農·老僧
4	金 構 (1649~1704)	老將·老兵·老仙· 老農·老僧	칠언율시 5수	老將·老兵·老仙·老 農·老僧
5	吳尙濂 (1680~1707)	老將·老馬·老儒· 老僧·老醫·老吏	칠언율시 6수	老將·老馬·老儒·老 僧·老醫·老吏
6	南龍萬 (1709~1784)	十老詩	칠언율시 10수	老將·老奴·老馬·老 妓·老儒·老僧·老醫 ·老吏·老妾·老兵
7	李獻慶 (1719~1791)	老將軍·老措大·老 僧·老妓	칠언율시 4수	老將軍·老措大·老僧 ·老妓
8	申宅權 (1722~1801)	九老吟	칠언율시 9수	老儒·老僧·老將·老 兵·老農·老圃·老醫 ·老巫·老妓
		七老吟	칠언율시 7수	老仙·老伶·老卜·老 匠·老吏·老奴·老婢
		五老吟	칠언율시 5수	老馬·老牛·老龍·老 虎·老狐
		三老吟	칠언율시 3수	老松·老檜·老梅
		一老吟	칠언율시 1수	老主人
		十老吟	칠언율시 10수	老眼·老耳·老眉·老 鬚·老手·老脚·老齒 ·老頰·老歌·老筆
		八老吟	칠언율시 8수	老翁·老媪·老鰥·老 寡·老妻·老妾·老友 ·老商
		六老吟	칠언율시 6수	老學長·老閑良·老漁 父·老鷹師·老梢工· 老冶工
		四老吟	칠언율시 4수	老石手·老刻手·老譚 官·老宦官

		二老吟	칠언율시 2수	老宮人·老驛
9	睦萬中 (1727~1810)	詠老十四篇云云 ³⁾	칠언율시 14수	老儒·老將·老農·老醫·老妾·老僕·老吏·老卒·老巫·老卜·老僧·老妓·老牛·老馬
10	尹 愔 (1741~1826)	人有以老字賦十二首者云云 ⁴⁾	칠언율시 14수	老儒·老將·老農·老醫·老僧·老卒·老卜·老巫·老吏·老奴·老妾·老奴·老馬·老牛
11	曹鳳默 (1805~1883)	八老詩	칠언절구 8수	老相·老將·老儒·老俠·老醫·老僧·老農·老妓
12	李尙迪 (1803~1865)	老醫·老僧·老婢·老妓·老驢·老鼠·老狗·老豬	칠언절구 8수	老醫·老僧·老婢·老妓·老驢·老鼠·老狗·老豬
13	李希豊 (1813~1886)	次八人老詩	칠언절구 8수	老相·老將·老儒·老俠·老醫·老農·老僧·老妓
14	金璣聲 (1822~1892)	次李青田【鶴來】十老韻	칠언절구 10수	老相·老將·老儒·老農·老醫·老僧·老俠·老妓·老總角·老處子
15	李志容 (1825~1891)	十老詩	칠언절구 10수	老宰·老將·老儒·老俠·老醫·老僧·老農·老妓·老角·老處子
16	鄭胤永 (1833~1898)	荊山兄送八老詩要和, 戲題以呈.	칠언율시 8수	老宰·老將·老儒·老農·老吏·老僧·老妓·老優
		又次荊山八老韻	칠언율시 8수	老松·老柏·老梅·老竹·老槐·老梧·老檜·老柳
17	安益濟 (1850~1909)	與張春觀共作十老詩	칠언절구 10수	老儒·老相·老將·老農·老漁·老僧·老吏·老鰥·老寡·老妓

3) 목만중이 지은 작품의 제목은 「詠老十四篇, 諸君蓋於暇日游戲自娛之作也. 所貴乎

유극장은 늙음과 관련해 장수와 말과 기녀 등 열 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칠언율시 한 수씩을 각각 지었다. 조선 문인은 유극장의 노음시를 수용하면서도, 대상을 빼고 더하며 시의 형식도 자신에 맞게 변주하면서 다양한 연작 노음시를 창작했다. 그간 연작 노음시에 대한 선행 연구도 일정 정도 보고되었다. 목만중(睦萬中)의 노음시에 대한 소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⁵⁾ 정운영(鄭胤永)의 팔로시(八老詩)를 인물과 사물로 나누어 접근한 성과도 보고되었다.⁶⁾ 또한 연작의 형태로 55수라는 가장 많은 작품을 지은 신택권(申宅權)의 노음시에 대한 연구 성과도 있다.⁷⁾

위의 표에서 확인했듯이, 연작 노음시는 여러 문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각 문인의 작품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도 거시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거시적인 통찰을 위해 우선 미시적인 접근을 위해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남용만(南龍萬)의 「십로시(十老詩)」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의 수많은 문인이 유극장의 노음시를 이어, 적지 않은 작품을 지었고 대상의 확대나 축소, 시체(詩體)의 변화 등을 꾀하면서 자신만의 노음시를 완성했다. 그 중 남용만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유극장의 십로시에 보이는 대상만을 활용하여 10수의 작품을 지었고 각 작품 역시 유극장의 운자(韻字)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유극장 노음시의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을 비교 검토하면서, 유극장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고취시키면서 남용만의 수용 양상도 함께 살필 것인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일련의 노음시에 대한 접근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壽考無恙者，以其能優閒佚樂也。若嗟怨悲苦，不能以理自遣，則卽卑賤兒女事耳，何足道哉。馬牛二獸列之下方者，亦以物類之最關人事也。依其題而不依其韻云。」이다.

- 4) 윤기가 지은 작품의 제목은 「人有以老字賦十二首者，蓋推歎老之意也。余以爲猶有所未盡收者，農與卒是也。遂添之爲十四首，覽之者，倘不以爲蛇足也歟。」이다.
- 5) 이새롬, 「睦萬中 노년기 시의 특징 소고」, 『한국학』 3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6) 박종훈, 앞 논문 참조.
- 7) 김종하, 「樗庵 申宅權 ‘十老詩’ 연구」, 『대동한문학』 60집, 대동한문학회, 2019; 박종훈, 「樗庵 申宅權의 老吟詩 一考察」, 『은지논총』 71집, 은지학회, 2022.

2. 남용만과 십로시 개괄

남용만(1709~1784)의 본관 영양(英陽), 초명은 해만(海萬), 자는 봉로(鵬路), 호는 활산(活山)이다. 평생 독서만을 일삼으며 특히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를 좋아했다. 14세 되던 1722년 종조숙부(從祖叔父) 남국선(南國先)의 양자가 되었고 1745년에 생부상(生父喪)을, 1747년 생모상(生母喪)을 당했다. 이후 가솔을 이끌고 경주(慶州)의 명활산(明活山) 아래에 거주하면서 활산거사(活山居士)라고 자호(自號)하고 그 정자를 한한정(閒閒亭)이라 이름 했다. 이때 『대학(大學)』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에 힘을 쏟으면서 『대학장구난의(大學章句難疑)』를 저술했다고 한다.

1754년 48세에 형제들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이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1758년 50세에 부친상과 모친상을 연이어 당했다. 70세였던 1778년 7월에 홍양호(洪良浩)의 추천으로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병으로 나가지 않았고 1780년 12월,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역시 나가지 않았다. 73세였던 1781년 겨울, 재이(災異)로 인해 구언(求言)하는 임금의 교지로 인해 대학십조(大學十條)를 주 내용으로 시무(時務)를 논한 「응지소(應旨疏)」를 올렸다. 이 소장은 『활산집(活山集)』 권3에 실려 있는데, 영문(營門)에서 돌려보내어 임금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했다. 다음 해인 1784년 1월 26일 76세로 졸했다.⁸⁾

남용만의 「십로시」는 그의 문집인 『활산집』 권2 ‘율시(律詩)’ 항목에 실려 있는데, 저작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다. 「십로시」보다 6번째 앞에 수록된 「癸巳二月初六日夜夢云云」이라는 작품은 1773년 65세에 지은 것이다. 「십로시」보다 9번째 뒤에 실린 「七月承恩, 至冬末未得遞代。」라는 작품은 1778년 70세 되던 해 7월에 희릉참봉에 제수된 시점에 지

8) 이상의 행력은 『활산집(活山集)』에 실린 정범조(丁範祖)와 홍양호(洪良浩)의 서(序), 『활산집』 부록에 실린 남경채(南景采)의 「행장(行狀)」과 홍양호의 「묘갈명(墓碣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은 것이다. 이해보자면, 「십로시」는 과거 공부를 그만 둔 지 20여 년이 지났고 아직 참봉에 제수되기 전인 60대 후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은 일련의 작품이기에, 노년이 되도록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한 한 인간의 늙음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활산집』 권2에 실린 「십로시」 10수 앞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후촌 유극장이 지은 십로시가 있는데, 후대에 시인들이 이를 많이 모방했다. 유극장의 십로시는 모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다시 그 체제가 활용되지 못했지만 또한 시인의 탄식을 흔들어 깨우기 충분하기에 한가로움 속에 유극장의 작품에 따라 차운하여 짓다.⁹⁾

일단 남용만이 「십로시」 10수를 짓게 된 것이 유극장의 십로시에서 직접 영향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극장의 십로시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십로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元)나라 방회(方回)는 『영규율수(瀛奎律髓)』에서 “유극장의 시에는 세 가지 병폐인 ‘잘단 재주[巧]’, ‘쓸데없음[冗]’, ‘속됨[俗]’이 있어서 격조가 낮아 좋은 작품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흙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의 유극장의 『후촌집(後村集)』 제요(提要)에서도 유극장의 작품 중, “십로시가 가장 속된 격조[十老詩, 最爲俗格.]”라고 부정적 비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후대 시인들이 모방하고 남용만 자신도 차운한다고 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감회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하기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했던 유극장의 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면서, 자신의 탄식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바꿈시켰는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유극장의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남용만은 ‘老將·老奴·老馬·老妓·老儒·老僧·老醫·老吏·老妾·老兵’만을 대상으로 총 10수의 작품을 지었다. 대상의 동일함뿐 만 아니라, 각 작품의 운자(韻字) 역시

9) 『活山集』 권2 「十老詩」序 “劉後村有十老詩，後之詩家多效之。彼十者皆拋棄於人，而不復見用，亦足攪成騷歎，閒寂中逐次賦之。”

동일하여, 여타의 조선 문인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남용만은 유극장 십로시의 시어를 차용하거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도 있고 이를 변주한 양상도 확인되기에, 남용만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극장 작품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한다.

3. 십로시의 수용과 변주 양상

본 장에서는 유극장의 십로시에 대한 남용만의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변주 양상의 경우 시상 전개와 내용상의 변주라는 두 개의 틀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을 비교했다. 그러나 한 작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포착되기에,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나눈 편의상의 방법임을 미리 밝힌다.

3.1 수용 양상

노음시는 기본적으로 늙음에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젊은 시절 품었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발현으로, 유극장이나 남용만에게서 목격되는 공통된 의식이다.

지금껏 형설로 공부 하며 살았는데	向來歲月雪螢邊
늘그막 생애는 우물과 절구뿐이네.	老去生涯井臼前
효렴으로 친거한 옛 일 회복되지 않았고	學孝廉科非復古
영수장(靈壽杖) 주던 시절은 정히 언제였던고.	給靈壽杖定何年
헛되이 많은 책 보았지만 끝내 쓸모없노니	空蟠萬卷終無用
삼장(三場)에만 힘쓰는 것 그렇지 않은 듯하네.	專巧三場恐未然
그래도 어릴 적 들었던 말 기억하노니	猶記兒時聞緒論
흰머리로도 감히 스승 가르침 등질 수 없네.	白頭不敢負師傅
주변에 책을 두고 늘 책을 읽지만	數墨尋行簡冊邊
한 순간 뒤쪽도 또 앞쪽도 잊어버리네.	居然忘後又忘前

향공(鄉貢)으로 부터 비로소 벼슬길 열렸지만	地從鄉貢初開路
하늘이 명도(名途)를 막아 나이만 먹었다네.	天塞名途只與年
늘 옛 공부는 세상과 안 맞는다 핑계되며	常託舊工違此俗
말세의 운세라서 그렇다고 위로한다오.	推占末運訝其然
거친 글을 오히려 시배(時輩)에게 팔고자 하여	荒詞尙欲售時輩
힘써 새론 벗에게 기술을 전해주고 싶네.	靳向新朋技術傳

‘늙은 유생[老儒]’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의 작품은 유자로서 공부하면서 과거 공부를 했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채 늙어 그지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벼슬하지 못하고 그저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서글픔이 주된 내용인데, 그래도 유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유극장은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나갔다가 5번이나 쫓겨난 바 있는데, 그러한 삶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용만 역시 유극장과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구의 ‘수묵심행(數墨尋行)’은 글을 읽기만 하고 그 뜻을 제대로 모른다는 의미이다. 책을 주변에 두고 늘 보지만, 노년이 되어 그 의미를 금새 잊어버리고 만다는 겸사의 말로 보인다. 비록 향시(鄉試)에는 합격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는데, 이를 천명으로 여겼다. 보통의 유자들이 갖고 있는 천명의식이 반영된 구절이다. 옛 공부는 세속의 명성을 구하려는 것과는 다르기에, 벼슬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자신의 운수를 말세를 만난 것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실제 남용만은 48세였던 1756년에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이후 과업을 그만두었는데, 참봉 벼슬에 나가기 전인 남용만 자신의 모습이 일정 부분 투영되었다. 그러한 유자로서의 자부심이 늙어서도 변치 않았음을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했다.

두 작품 모두 현달하지 못한 채 늙었지만, 유자로서의 책무와 자부심은 변치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유극장은 현재의 빈한한 삶으로 인해, 공부가 부질없었다고 낙담한 반면, 남용만은 자신의 현재 삶을 지속적으로 위안했다. 각 시인의 삶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그 곁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시절 일 못했지만 노년 들어 공교로워졌고	少諳刀筆老尤工
옛 일이나 새로운 일 물어 대략 통한다오.	舊貫新條問畧通
지혜 다툼은 진실로 수컷 오리 떼와 같으며	鬪智固應雄鷺羣
연륜 또한 저공(狙公)이 되기에 적합하다오.	論年亦合作狙公
손괴(孫魁) 현명했지만 속임을 당했었고	孫魁明有堪瞞處
포로(包老) 엄중했으나 오히려 그 그늘에 있었지.	包老嚴猶在套中
다만 두려운 건, 염라가 그냥 지나치지 않아	祇恐閻羅難抹過
철 채찍에 훗날 귀신 불기 붉게 되는 것.	鐵鞭他日鬼臀紅

문서 처리 멋대로 함을 공교롭다 말하니	折簿行奸自謂工
공교로운 너의 죄는 하늘도 알리라.	工爲爾罪可天通
마음속 단심의 올바람은 완전히 속였지만	專欺肚裏丹衷正
인간세상 백발의 공평함은 맘대로 못했네.	未弄人間白髮公
나라의 법을 일정함 없이 제멋대로 집행하고	邦憲不常操縱下
고을 곡식을 모두 수레로 옮겨 나르네.	邑儲都付委輸中
한평생 처자의 굶주림과 추위 계책으로	一生妻子飢寒計
지그시 곳간에 넘쳐나는 곡식을 가리키네.	暗指倉箱有腐紅

‘늙은 아전[老吏]’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은 아전의 교활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젊은 시절엔 문서처리[刀筆]도 제대로 못했는데, 늙어서 더욱 교활해졌다고 1구에서 언급했다. 이러한 교활함은 4구의 ‘저공(狙公)’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저공’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관련된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교활한 솜씨로 사람을 속이는 아전을 가리킨다. 5구의 ‘손괴(孫魁)’와 6구의 ‘포로(包老)’는 강직한 관리로 보이는데, ‘손괴’는 미상이다.¹⁰⁾ ‘포로’는 포청천(包青天)으로 알려진 송(宋)나라 때의 강직한 관리인 포증(包拯)을 말한다. 포증은 강직하여 귀척이나 환관들이 모두 그를 꺼렸으며, 당시에 염라포로(閻羅包老)라고 불리어졌다. 그러한 관리 역시 아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언급이다. 7,8구는 염라가 죽은 아전이라도 철 채찍

10) 유극장의 노음시와 관련한 방회는 『영규율수』에서 “늘 사람의 이름 한 글자만을 사용했으니, 더욱 본받을 만하지 않다.[每人名單是一字, 尤不可法.]”라고 평한 바 있다. 이로부터 ‘손괴’는 ‘손씨 성을 갖은 장원급제한 인물로 보인다.

으로 불기를 때릴 것이기에, 아전들이 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이 작품에 대해 『영규율수』에서는 “이 늙은 아전을 대상으로 한 시는 통쾌하다. 철 채찍으로 귀신의 불기를 때린다는 말은 자후(子厚) 장돈(章惇)의 말인데, 옮겨와 늙은 아전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 이용한 것이니, 또한 교활하고 꾀박하는 아전의 간담을 썩늘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此老吏詩，痛快。鉄鞭打鬼臀，乃章子厚語，移以用之老吏，亦足以寒猾刻之胆否。】”라고 평한 바 있다. 늙은 아전이 교활하게 백성을 꾀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남용만의 작품도 아전에 대한 비판으로, 유극장의 작품과 대동소이하다. 사익(私益)을 위해 공교롭게 범망을 속이는 아전의 모습을 6구까지 그려냈다. 유극장의 작품에서 말한 ‘손괴’나 ‘포로’ 같은 강직한 관리를 속인 정황을 3구에서 언급했으며, 그럼에도 백발이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4구에서 언급했다. 5,6구는 백성을 꾀박하는 아전의 모습으로, 유극장의 4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 구절은 처자들의 생계를 위해, 관청 곳간의 재물을 넘보는 모습으로 아전의 교활함을 묘사한 것이다.

유극장이나 남용만의 작품은 아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작품화했다. 또한 아전이 교활하게 백성들을 속이는 정황을 묘사하면서, 유극장은 죽어서라도 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엄벌을 다짐했고 남용만은 끝없는 탐욕의 대상으로 아전을 묘사했는데, 앞서 살핀 유자로서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속내는 대동소이하다.

‘늙은 의원[老醫]’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의 작품에서는 의원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어느새 노년이 되어버린 상황을 묘사하면서 늙음에 대한 탄식을 자아냈다.¹¹⁾ 남용만의 작품 역시 유극장의 작품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시킨 부분도 유극장과 유사한 흐름이다. 의원의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노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유극장의 마지막 구절과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¹²⁾

11) 유극장 ‘老醫’ “劉叟衣裝絳老年，市中賣藥且隨緣。馳名最久經三世，閱病雖多未十全。龜手有方俄貴矣，烏髭無訣盡皤然。卧聞鵲噪扶筇起，偶值鄰翁送謝錢。”

12) 남용만 ‘老醫’ “暗帶針囊自少年，單方一卷始爲緣。藥名本草繁難解，脈術眞經錯未

또한 유극장은 ‘늙은 병사[老兵]’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작품을 열었지만 바로 상처에 아파하고 기력도 쇠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작품을 일관했다. 마지막 구절에서 노년의 모습을 위안했지만, 전체적으로 노쇠해진 병사에 대한 애달픔이 주된 내용이다.¹³⁾ 남용만 역시 유극장과 동일한 흐름이다. 작품을 젊은 시절로 시작했지만, 이후 노년의 모습에 집중했고 작품의 말미에서는 스스로를 위안했다.¹⁴⁾

유극장과 남용만의 십로시는 노년에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젊은 시절 품었던 유자로서의 포부가 실현되지 못한 채 식어 버린 노년의 서글픔이 깃들여 있다. 아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어찌 보면 유자로서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남용만은 유극장의 시상뿐만 아니라 시어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그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

3.2 변주 양상

본 절에서는 남용만이 유극장의 십로시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시적 재능을 더하거나 자기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유극장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을 남용만은 어떻게 수용하고 변주했는지, 이를 통해 유극장과 변별되는 남용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두 시인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全. 辟老無丹衰甚矣, 垂髻到白說紛然. 奇功欲向時人術, 猜却巫娥紙作錢.”

13) 유극장 ‘老兵’ “元戎尙臥未褰簾, 曉看清水掛在髻. 腹裏遺兒年幾長, 塞中寒病日逾添. 無端漢將初輕狄, 不獨秦兵共怨恬. 聞說明朝將北戰, 璽書重下賞新練.”

14) 남용만 ‘老兵’ “昔擁瑠戈射鐵簾, 可堪蓬鬢照冰髯. 金瘡常有些兒痛, 斗力今難寸許添. 至老安能希駱甲, 從初悔不事蒙恬. 莫嗟身上衣裘薄, 猶向官中請半緜.”

15) 노음시의 작가들은 유자였기에, 이러한 시선은 여타의 노음시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자나 아전만을 언급한 작품만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하면 그러한 시선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3.2.1 시상 전개에의 변주

난간의 야윈 말 상처 나고 절뚝거리는데	脊瘡蹄蹇瘦闌干
관인 찍힌 세월 오래 되어 글자도 희미하네.	火印年深字已漫
들 시내에 얼음 있어도 아침에 겁먹지 않았는데	野澗有冰朝洗怯
무너진 마구간 벽 없어 밤에 추위에 울어대네.	破坊無壁夜嘶寒
몸은 퇴출처럼 보잘것없는 곡식으로 지탱하며	身同退卒支殘料
새론 말에 얹힌 멧진 안장을 본다오.	眼見新駒鞍寶鞍
예전에 변방을 번개처럼 달렸는데	昔走塞垣如抹電
늘그막에 문 나서는 것도 어려울 줄 알았으랴.	安知末路出門難

물노니, 네가 몇 살인지 어찌 알라	問渠那識齒如干
무너져 담도 없는 마구간 밤에 눈 휘날린다.	廢廄無障雪夜漫
고삐는 느슨해졌고 발굽은 더욱 너덜너덜	韁繫不鞭蹄愈澁
깊은 상처 낫지 않아 등줄기 유독 춥네.	瘡深未肉脊偏寒
누가 시장에서 팔며 값 논할 것이며	誰人倚市論金價
어느 날에나 멧진 안장 엮고 길 갈까.	何日登程負玉鞍
위험한 길도 예전에는 평탄한 길이었는데	鳥棧羊腸曾坦道
생각해보니 험한 길 하늘 오르듯 어려웠지.	回思絕險上天難

‘늙은 말[老馬]’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의 이 작품에 대해 『영규율수』에서는 “뒤 4구절은 모두 두보(杜甫)의 「병마행(病馬行)」이란 작품의 뜻을 활용했다. 기구 역시 두보의 시어이다.”라고 한 바 있다.¹⁶⁾ 두보의 「병마행」은 「수마행(瘦馬行)」으로, 병든 말의 쓸쓸하고 낭패스러운 모습을 완전하게 묘사한 작품이다.¹⁷⁾ 유극장의 경우에는 늙은 말의 시선으로 작품을 전개하면서, 늙음에 대한

16) 방희, 『영규율수』 “後四句, 儘有意然老杜病馬行盡之矣. 起句即老杜語耳.”

17) 두보(杜甫)의 「수마행(瘦馬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東郊瘦馬使我傷, 骨體硜兀如堵牆. 絆之欲動轉欹側, 此豈有意仍騰驤. 細看六印帶官字, 衆道三軍遺路旁. 皮乾剝落雜泥滓, 毛暗蕭條連雪霜. 去歲奔波逐餘寇, 驕驄不慣不得將. 士卒多騎內廐馬, 惆悵恐是病乘黃. 當時歷塊誤一蹶, 委棄非汝能周防. 見人慘澹若哀訴, 失主錯莫無晶光. 天寒遠放雁爲伴, 日暮不收烏啄瘡. 誰家且養願終惠, 更試明年春草長.”

탄식을 토로했다.

반면, 남용만은 1구부터, ‘말이 어찌 자신의 나이를 알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시인의 시선에서 늙은 말을 응시했다. 이후 구절에서도 늙어버린 상황에 대한 시인의 시선을 통한 묘사가 이어졌다. 2구 ‘廢廐無障雪夜漫’은 유극장의 4구 ‘破坊無壁夜嘶寒’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7,8구에서는 유극장의 작품과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유극장은 번개처럼 내달리던 과거와 마구간을 나서기도 힘에 겹다는 현재의 상황을 7,8구에 연이어 배치하여,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비애감을 조장했다. 반면, 남용만은 하늘 오르는 듯한 험한 길도 평탄한 길 가듯 쉽게 오른 건장했던 시절만을 언급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유극장은 과거와 현재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늙음에 대한 탄식을 자아냈고 남용만은 이미 작품의 전반부에서 늙은 말의 모습을 충분히 묘사했기에, 마지막 구절에서는 과거의 모습만을 던지시 보여줌으로써 언외지미(言外之味)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장수 자리 내려놓고 고향 돌아와	昨解兵符歸故里
변방 일 들으니 얼마나 새롭던가.	耳聽邊事幾番新
깃발 아래 오는 이 보니 얼굴 알아	遇逢麾下來猶識
요동일 얘기 하려했으나 기억 희미하네.	欲說遼陽記不眞
아이들 보검 구하니 더욱 소중하고	兒覓寶刀偏愛惜
노비가 갈대 피리 부니 문득 서글퍼지네.	奴吹蘆管輒悲辛
추운 밤 변방의 꿈도 꾸지 않지만	夜寒不作關山夢
만에 하나라도 임금이 옛 사람 불러주려나.	萬一君王起舊人

힘써 병법 말하는데 늙을수록 신묘했고	強說韜猷老轉神
가을 알려주는 변방 기러기 소리 실컷 들었지.	厭聽邊鴈報秋新
아침에 날카로운 칼 보니 마음 두근거리고	朝看劒雪魂猶悸
밤에 연나라 구름 밟으니 꿈이로구나.	夜踏燕雲夢匪眞
모래 변방에 조짐 일자 갑옷 입을 생각했고	沙塞動氛思拂甲
온 몸이 아파와도 곧바로 고달픈 잊었다네.	金瘡生肉便忘辛
이따금 깃발 아래서 서로 방문했는데	有時麾下來相訪
그때의 장사는 지금 모두 백발 되었구나.	強壯今皆白髮人

‘늙은 장수[老將]’를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의 작품은 장수에서 물러난 시점에서 시작하여, 늙은 장수의 현재 모습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혹시라도 임금이 다시 불러 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일견 노년에 대한 탄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다. 반면, 이 구절에 대해 『영규율수』에서는 송(宋)나라 조한(曹翰)이 지은 「내연봉조작(內宴奉詔作)」에 보이는 “일찍이 나랏일 때문에 쇠붙이로 만든 갑옷 걸쳤고, 집이 가난해도 보검은 팔지 않았네. 팔 힘 없어도 활시위 느슨한 건 싫고, 눈 흐릿해도 전장의 구름 높은 건 알겠노라.[曾因國難披金甲，不爲家貧賣寶刀。臂弱尙嫌弓力軟，眼花猶識陣雲高.]”라는 구절도 좋다고 하면서, 유극장의 이 작품의 하련(下聯)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한 바 있다.¹⁸⁾ 이를 통해 본다면, 표면상으로는 장수에서 물러난 탄식만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여전히 장수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은 노익장이 내면에 깃들어 있다.

이에 반해, 아래의 남용만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노년의 심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1,2구는 과거의 기억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법은 더욱 신묘했고 변방을 지키느라 가을 움을 알려주는 기러기 소리를 물리도록 들었다는 말이다. 이어 3,4구에서는 늙은 장수의 현재 모습을 묘사했다. 비록 늙어 전장에서는 물러난 장수이지만, 여전히 서슬 퍼런 칼날을 보면 무장으로서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변방을 누비는 꿈을 꾸는 꼴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퇴역한 현재의 모습이다. 다시 5,6구에서는 과거로 향했다. 변방에 오랑캐가 침입한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갑옷을 챙겨 입었고 몸이 아파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 아픔도 잊었다는 말이다. 7,8구는 변방에서 강인한 모습으로 함께 했던 장수들이 지금은 모두 흰머리의 노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현재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1,2구)에서 현재(3,4구)로, 현재(3,4구)에서 다시 과거(5,6구)로, 이어 과거(5,6구)에서 현재(7,8구)로 이어지는 작품의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철저하게 대비시켜 늙은 장수의 비애감을 고조시켰다.

18) 방희, 『영규율수』 “詩話記曹翰詩，曾因國難披金甲，不爲家貧賣寶刀。臂弱尙嫌弓力軟，眼花猶識陣雲高。亦佳而下聯合掌。”

유극장은 전체 작품에서 늙은 장수만을 거론하면서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탄식과 노익장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면 남용만은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인 교차를 통해 노년의 탄식만을 효과적으로 설파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구성을 통해 노년의 탄식에 집중하여 배가시킨 셈이다.

또한 유극장의 작품을 남용만 자신의 의도에 맞게 엮은 것은 운자에서도 확인된다.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은 모두 칠언율시이다. 칠언율시의 경우, 1·2·4·6·8구의 마지막 글자를 압운한다. ‘늙은 장수 [老將]’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제외하고 남용만이 동일한 대상을 언급한 작품은 1·2·4·6·8구의 마지막 글자가 유극장 작품과 동일하다. 그러나 유극장의 ‘노장’의 1구 마지막 글자는 ‘이(里)’로, ‘지(紙)’ 운목(韻目)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나머지 2구의 ‘신(新)’, 4구의 ‘진(眞)’, 6구의 ‘신(辛)’, 8구의 ‘인(人)’은 모두 ‘진(眞)’의 운목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유극장 작품의 1구 ‘이(里)’는 압운에 맞지 않는다. 남용만은 이를 의식한 듯, ‘이(里)’를 자신의 작품에서는 ‘신(神)’으로 바꾸었는데, ‘신(神)’ 역시 ‘진(眞)’의 운목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유극장의 작품에서 흠이 될 수 있는 운자 부분을 수정하여 전체적인 한시의 격식을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노년의 탄식을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인 노음시의 시상 전개이다. 유극장 역시 이를 활용하여, 노년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지만, 남용만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년의 비애감을 효과적으로 배가시켰다. 또한 시어나 시상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시의 형식적인 측면의 보완을 통해 자기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내용상의 변주

어릴 적에 천해 굶주리며 단벌의 해진 옷
주변 사람 문호에서 굶주림 추위 속에 살았지.
어린 나이에 노비 문서에 이름 올라서
나이 들어서도 오히려 관 못 올렸네.
잔치에 남은 찬 고기를 이따금 먹으면서
절구 주변 남은 곡식을 쓸어 담았네.

少賤腸枵破褐單
傍人門戶活飢寒
自從毀齒初成券
直至長鬚尚不冠
冷炙時霑筵上餽
秃芒旋掃臼邊殘

두 노비의 입장에서 노비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지만, 비애와 희망이라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마무리했다. 남용만이 노년에 대한 인식의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뒤집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기생들 사이 노래 춤으로 예전 이름 날렸으니
 초취함에도 여전히 자태와 정취 남아 있네.
 예전 관리에서 사랑받던 일 말하기 좋아하고
 친한 손님의 어릴 적 이름 맘대로 불러대네.
 가는 머리 이미 빠져 빗질하기도 어렵고
 한 쪽 이부자리 늘 비어 잠 이루지 못하네.
 외려 부러워하네, 이웃 여인 방안 후끈하며
 담장 너머에서 새벽까지 촛불 밝힌 것.

籍中歌舞昔馳聲
 憔悴猶存態與情
 愛說舊官當日寵
 偏呼狎客少時名
 薄鬢已脫梳難就
 半被常空睡不成
 却羨鄰姬門戶熱
 隔牆張燭到天明

그대로인 악기는 옛 음색이라
 맞이해 연주하노라니 옛날 생각나누나.
 예전 얼굴 알던 손님 만나 부끄럽고
 요즘 이름 난 이웃 여인 보며 질투하네.
 형클어진 머리 드리운 채 빗질도 하지 않고
 원앙금침은 한쪽 비어 잠도 못 이루네.
 당시 가무하던 곳 여전히 남아 있는데
 반딧불이만이 밤 환하게 비추고 있구나.

無恙秦箏是舊聲
 迎卽有曲憶前情
 愧逢遊子曾知面
 妬看隣娥近擅名
 蓬鬢垂雙梳不理
 鴛衾虛半夢難成
 當時歌舞猶餘地
 只見飛螢照夜明

‘늙은 기며[老妓]’를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은 비록 늙었지만 노래와 춤으로 이름을 날렸던 과거의 자태와 정취만은 남아 있다고 하면서 작품을 시작했다. 3,4구는 젊은 시절 사랑받던 모습에 대한 회억이며, 5,6구는 늙어버린 현재 기녀의 모습으로, 늙음에 대한 탄식이 연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는 젊은 기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버려짐을 묘사하면서 자못 외설스러운 언급까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이 작품에 대해 『영규율수』에서 “이 작품의 8구는 시어와 의미가 모두 공교롭지만 또한 외설스럽다.[此詩八句語意俱工然亦褻矣]”라는 평을 붙였는데, 노년의 모습을 공교롭게 묘사했지만, 작품의 말미에 외설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어 속된 격조[俗格]라는

평가이다.

남용만의 작품이 유극장의 작품을 토대로 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남용만 3구의 ‘愧逢遊子曾知面’은 유극장의 4구 ‘偏呼狎客少時名’을, 남용만의 4구 ‘妬看隣娥近擅名’은 유극장의 7구 ‘却羨鄰姬門戶熱’을, 남용만의 5구 ‘蓬鬢垂雙梳不理’는 유극장의 5구 ‘薄鬢已脫梳難就’를, 남용만의 6구 ‘鴛衾虛半夢難成’은 유극장의 6구 ‘半被常空睡不成’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도입 부분 역시 동일한 맥락이며, 동일한 시어의 활용을 통한 동일한 의미의 생성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용만은 유극장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영규율수』의 부정적인 평가를 의식한 듯, 옛 노래하고 춤추던 곳은 반딧불이만이 날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의 화려함과 현재의 적막함만을 대비시켰다. 이를 통해 유극장의 작품과는 방향성을 달리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기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반 칸의 옛집에 차가운 바람 불어드니
함께 참선했던 이 모두 죽고 홀로 남았구나.
예전 스승 찾아 먼 곳까지 발길 옮겼는데
지금은 부처 앞에서 몇 사람만 머리 조아리네.
옛 목도리 쓸모없어 애오라지 거뒀들이고
찢긴 장삼 꿰매기 어려워 또한 그대로 두네.
소년들아 빈도(貧道)에 대해서 아느냐
일찍이 왕사(王謝) 두 공과 노닐었단다.

半間古屋冷颼颼
死盡同參偶獨留
昔已尋師遠行脚
今惟見佛小低頭
舊綾無用聊收取
破衲難縫且着休
年少還知貧道否
曾同王謝二公遊

뒷방은 허름하여 찬바람 불어드는데
먼지 낀 바랑 해진 장삼으로 머물기 바라네.
법당에 가고자 하나 아는 얼굴 있으랴
아이처럼 머리 깎는 것도 귀찮다 않네.
어린 중이 높은 자리 차지함 싫어하면서
인생은 무상하다고 잘못 지적하누나.
지옥과 천당에 대한 논의 오래 되었노니
법신은 어느 날에나 꽃비 속에서 노닐까.

後房難蔽冷颼颼
時覓塵囊破衲留
欲趁椒齋疇宿面
不煩刀削已童頭
猶嫌小釋陵高座
謬指生浮比死休
地獄天堂論說久
法身何日雨花遊

‘늙은 중[老僧]’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이다. 유극장은 홀로 남아 있는 늙은 중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탄식에만 머물지 않고 중으로 늙은 자부심도 표출했다. 7구의 ‘빈도(貧道)’는 중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고 8구에 대해서는 『영규율수』의 후촌자주(后村自註)에서 “지둔(支遁)이란 중이 ‘어린 사람은 숙사(宿土)에 대해 가볍게 논해서는 안 된다. 중[貧道]들은 예전에 원명(元明) 두 황제 및 왕도(王導)·사안(謝安) 두 공과 함께 노닐었었다.’라 했다.”라고 했다.¹⁹⁾ 이를 통해,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중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남용만도 유극장의 시어를 일정 부분 활용했다. 1구의 ‘冷颼颼’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유극장의 2구인 ‘死盡同參偶獨留’를 남용만은 3구에서 ‘欲趁椒齋疇宿面’이라고 자기화했다. 하지만 5구부터는 유극장과 다른 방향으로 작품이 전개되었다. 노승임에도 어린 중의 무례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6구의 ‘생부(生浮)’과 ‘사휴(死休)’는 『장자(莊子)』 「각의(刻意)」에 보이는 ‘삶이란 떠 있는 물거품 같고, 죽음이란 그 거품이 꺼지는 것과 같다.[其生若浮, 其死若休.]’라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잠시 이 세상에 떠돌다가 바로 간다는 무상한 인생을 의미한다. 불가의 공(空) 사상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구절로 보인다. 또한 마지막 구절의 ‘법신(法身)’은 본래 부처의 진신(眞身)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노승을 가리키고 ‘우화(雨花)’는 법사(法師)가 설법(說法)을 하면 하늘이 감동해 꽃비가 내린다는 고사를 활용하여²⁰⁾ 노승이 다시 불가에 귀의할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두 작품은 일단 시선부터 다르다. 유극장의 경우에는 노승의 자기발화로 보이지만, 남용만의 작품은 노승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하기에 남용만의 작품에서는 노승에 대한 다소 부정적

19) 방희, 『영규율수』 “后村自註, 支遁云, 黃叟少年, 無爲輕議宿土. 貧道昔曾與元明二帝王謝二公遊.

20) 양 무제(梁武帝)는 불교를 무척 숭앙하던 인물로 많은 승려를 모시고 있었다. 그 가운데 운광법사(雲光法師)를 가장 존경했는데, 그가 강경(講經)을 하면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 하늘나라 음식이 공양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육조사적편류(六朝事跡編類)』 「우화대(雨花臺)」에 보인다.

인 시선이 포착된다. 이는 중에 대한 당대 시선과 유사인 남용만의 처지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극장의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남용만이 나름대로 자기화한 셈이다.

‘늙은 첩[老妾]’을 대상으로 한 유극장의 작품은 5,6구에서 화려했던 젊은 시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늙은 첩의 쓸쓸함에 집중되어 있다.²¹⁾ 남용만의 작품도 유극장 작품과 대동소이하다. 3,4구에서 주인 아내에 대한 질투심은 여전하고 박정한 낭군에 대해 원망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원색(怨色)’과 ‘풍정(風情)’을 언급한 유극장의 3,4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유극장은 5,6구에서 젊은 날의 기억을 통해 지금의 서글픔을 배가 시켰지만, 남용만은 애정을 잃은 늙은 첩의 현재 모습에만 집중하여 점층적인 효과를 노렸다.²²⁾

유극장의 ‘늙은 첩[老妾]’이란 작품에 대해 『영규율수』에서 “세 가지 병폐인 ‘잔단 재주[巧]’, ‘쓸데없음[冗]’, ‘속됨[俗]’이 있어서 격조가 낮아 좋은 작품은 아니다.……‘태위(太尉)’와 ‘사공(司空)’의 연(聯)은 쓸데없는 말이다.[其病有三, 曰巧曰冗曰俗, 而格卑不與焉.……太尉司空之聯, 冗也.]”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유극장 작품의 5,6구에 대한 평가이다. 남용만은 유극장 작품의 5,6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규율수』의 평가를 의식했기에, 자신의 작품 5,6구에서는 노년의 첩의 모습만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남용만은 유극장의 시어나 시상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 활용했다. 유극장의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적극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노년의 한탄에만 머물지 않고 여유롭게 노년을 받아들이거나 자신만의 처지를 대입시켜, 유극장과는 결을 달리 하여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았다.

21) 유극장 ‘老妾’ “傷春感舊似中醒, 樂器全拋曲譜生. 自小抱衾無怨色, 有時擁髻尚風情. 曾陪太尉斟還唱, 猶記司空服與聲. 着主衣裳爲主壽, 莫如琴客別宜城.”

22) 남용만 ‘老妾’ “怒擲爲釵似病醒, 向來愁恨此中生. 惟緣主婦餘猜意, 謾說郎君本薄情. 持鏡掃塵旋失色, 抱衾當夕乍低聲. 疎鬢強理非要媚, 弊帚猶堪備肉城.”

4. 나가는 말

송나라 유극장이 늙음과 관련해 십로시를 지은 이후, 조선 문인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적지 않은 노음시를 지은 바 있다. 조선의 각 문인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노음시의 대상을 조절하였고 전통적인 칠언율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냈다. 그 중에서도 남용만은 유극장이 언급한 대상을 그대로 수용했고 실제 작품에서도 유극장이 각 대상마다 운자로 삼았던 운자를 그대로 활용한 바 있다. 그렇기에 남용만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극장 작품과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용만은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이후 과거를 단념했다. 이후 노년인 70세와 72세에 참봉에 제수되었지만 출사하지 않았다. 남용만의 「십로시」는 과거를 단념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참봉에 제수되기 전인 60대 후반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유자를 자임했지만,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한 채 늙은 자신의 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젊은 시절 품었던 포부를 이루지 못한 채, 쉬 늙어 버린 상황에 대한 탄식이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에 보이는 공통된 부분이다. 남용만은 유극장의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유극장의 작품에 보이는 시어뿐만 아니라, 시상도 적극 차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어느 정도 담아냈다. 적극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남용만의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노음시에서 늙음에 대한 탄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다. 유극장의 경우에도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남용만 만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노년의 비애감을 조장하지는 못했다. 유극장 시어나 시상 전개를 수용하면서도 자기화한 셈이다.

또한 내용상에 있어서도 유극장과 차별성이 드러난다. 유극장의 작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있는데, 긍정 평가 부분은 적극 수용했지만 부정 평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그 부분을 자신의 목소리로 채웠다. 이 역시 수용하면서도 자기화의 변주가 이루어진 대목이라

하겠다.

유극장과 남용만의 작품에 보이는 동이(同異)는 사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삶이나 그러한 삶 속에서 느낀 늙음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동일한 그릇에 담겨졌지만, 그릇에 담긴 음식은 서로 달랐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앞선 표에서 확인되듯이, 연작의 노음시는 적지 않다. 본 논문은 이들 연작 노음시에 대한 접근의 시작점에 있다. 유극장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본격적인 수용과 변주 양상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기에, 동일한 대상과 운자를 활용한 남용만의 작품에 우선 주목했다. 다른 작가의 작품과 한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고구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본 논문이 그러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A Study on Nam Yongman's 「Ten poems about old age」

-Focusing on Comparison with Liu kezhuang's Ten poems about old age-

Park, Chonghoon(Chosun University)

Song Dynasty(宋) Liu kezhuang(劉克莊) has written works related to old age for 10 subjects. These works contain the artist's consciousness of facing old age. Under this influence, a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 were created in Joseon as well. There are a total of 10 pieces of Liu kezhuang's works, which is ChilEonYulsi(七言律詩). The writers of Joseon were not bound by these forms, but adjusted the number of works or expressed their own voices through the use of various poetic forms.

In this study, among them, Nam Yongman(南龍萬)'s 「Ten poems about old age(十老詩)」 was compared with Liu kezhuang's works, and its acceptance and variation aspects were examined. This is because, among Joseon writers who wrote a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連作老吟詩), only Nam Yongman was judged to be optimal in examining the acceptance and variation aspects because he was consistent with the subject Liu kezhuang mentioned and accepted the same rhyme.

The main content of the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 is lamentation about old age. Liu kezhuang and Nam Yongman did not deviate too much from the framework. In order to reveal the sigh of old age, Nam Yongman actively utilized

poetic words and poetic images found in Liu kezhuang's works.

On the other hand, Nam Yongman also made efforts to contain his own voice. Nam Yongman developed his poetry while thoroughly contras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effectively revealing the sighs of old age. He also created works of different flow from the contents of Liu kezhuang's works. The phrase that reflects the positive evaluation of Liu kezhuang's work was actively accepted in his work, and the phrase that reflects the negative evaluation was filled with his own voice and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work.

This paper is at the starting point of access to a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 The reason why Nam Yongman's works were examined in this paper is because of the judgment that a series of roaring poems should be studi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iu kezhuang's works. It is a limitation that this thesis could not be compared with the works of various writers, but I hope it will be helpful for the study of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

Key words : Liu kezhuang(劉克莊), Nam Yongman(南龍萬), A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老吟詩), A series of works with the theme of old age(連作 老吟詩), Ten poems about old age(十老詩), Awareness of old age, Acceptance and Varia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남용만(南龍萬), 『활산집(活山集)』, 한국문집총간 속 79.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중하, 「樗庵 申宅權 ‘十老詩’ 연구」, 『대동한문학』 60집, 대동한문학회, 2019.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연작 八老詩 일고찰」, 『온지논총』 65집, 온지학회, 2020.

박종훈, 「樗庵 申宅權의 老吟詩 一考察」, 『온지논총』 71집, 온지학회, 2022.

이새롬, 「睦萬中 노년기 시의 특징 소고」, 『한국학』 3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사고전서전자판(四庫全書電子版)